

2017-11

「경제」

대러 제재 이후 에스토니아 무역 변화 - 유제품의 사례를 중심으로 -

주요내용

Martins Priede Lecturer
Estonia Business School

💡 주요내용

- 2014년,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의 무역 제재 발효로 인해 에스토니아의 대러시아 수출에 큰 영향을 받게 됨.
- 특히 우유 경우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역에서도 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함.
-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제재 이후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함. 러시아 제재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에스토니아는 신규 개척된 시장에 더 많은 유제품을 수출하여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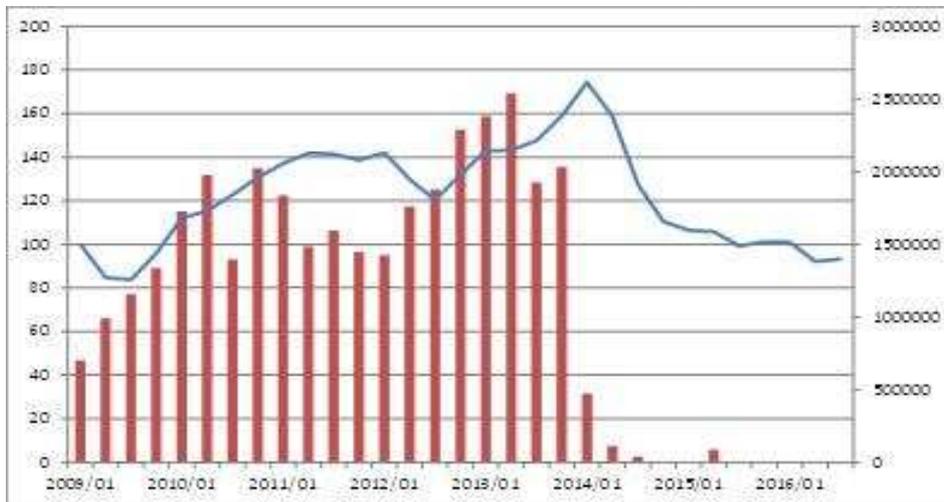
1. 이슈 현황

❖ **2014년,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의 무역 제재 발효로 인해 에스토니아의 대러시아 수출에 큰 영향을 받게 됨.**

- 2014년 이후, 유럽연합(EU)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러시아에 무역 제재를 시행함.
 - 이에 러시아는 보복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하여 미국, 캐나다, 노르웨이, 호주에서 육류, 수산물, 과일, 채소, 우유 및 유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것을 발표함.
 - 그러자 농업이 주요산업인 동유럽 국가들은 수출에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음.
 - 특히 에스토니아의 농업, 임업, 어업은 2015년 기준으로 GDP에서 3.4%의 비중을 차지하여 인구의 3%가 종사함.
- 에스토니아의 대러시아 무역의존도는 높았으나, 2015년 러시아의 수입 비중 변화로 인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찾아야 함.
 - 2013년에는 에스토니아의 총수출 중 러시아는 11%를 차지하며, 무역대상국 중 3위였음.
 - 2015년, 러시아는 스웨덴, 핀란드, 라트비아 이후 에스토니아의 4번째 무역대상국이었으나,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6.7%까지 감소함.
 - [그림 1]에서 볼 수 있듯, 에스토니아의 대러시아 치즈 수출은 0에 가까워짐.

그림 1. 2009~2016년 간 에스토니아의 대러시아 분기별 치즈 수출 및 우유가격지수

(2009년 = 100 기준, 단위: 유로)



자료 : 에스토니아 통계청 (2016.12.17.)

- 러시아는 국내 생산 증진과 새로운 무역대상국 모색을 목적으로 농산물 수입의 55%와 우유, 치즈, 요거트 수입의 95%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발효함.
 -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는 새로운 유제품 및 축산물 시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.
 - 러시아의 무역 제재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할 것으로 예측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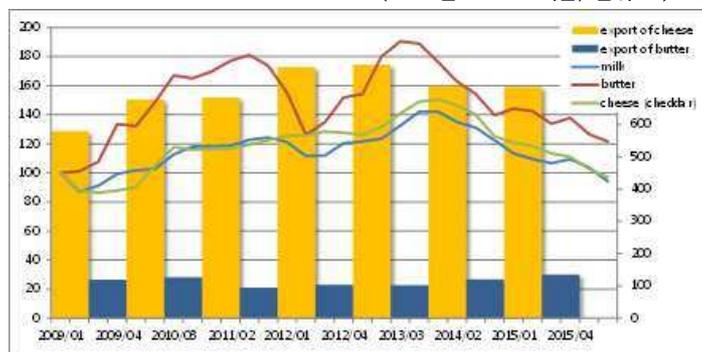
2.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유제품 가격 하락 현상

▶ 특히 우유 경우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역에서도 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함.

- 핀란드, 스웨덴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와 같은 국가에서도 현재 에스토니아와 같은 우유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남.
 - 심지어 우유 생산을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증량하여 오히려 우유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함.
 -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전역의 우유 가격이 2016년 중반까지 하락함.
 - 이에 따라 치즈와 버터의 가격 역시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
- 이러한 과잉 생산 및 가격 하락 문제는 해외 유제품 수입에 대한 급격한 감소로 이어짐.
 - 예를 들어, 2015년 치즈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0% 감소함.
 - 미국, 뉴질랜드, 러시아, 호주에서의 유제품 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함.
 - 반면 유럽연합의 치즈 수출은 증가하였으며, 2015년 일본의 유럽연합산 치즈 수입은 전년 대비 약 48% 증가함. 또한, 이집트와 멕시코의 유럽연합산 치즈 수입량은 역시 각각 43%, 35% 상승함.

그림 2. 유제품 분기별 가격지수 및 유럽연합의 유제품 수출량

(2009년 = 100 기준, 단위: 1,000 톤)



자료 : Eurostat (2016.12.27.)

3. 전망과 시사점

▶ **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제재 이후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중이며, 러시아 제재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신규 개척된 시장에 더 많은 유제품을 수출하여야 함.**

- 에스토니아는 2015년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고 있음.
 -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의 국가별 우유 수출량은 이탈리아 162%, 네덜란드 79%, 그리스 533%로 증가함(2013년 대비).
 - 더 나아가 에스토니아는 몰타나 유럽연합 외부의 나이지리아,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신규 시장을 개척함.
 - 러시아 인근에 위치하고, 에스토니아와 우유 가격이 비슷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무역 제재로 에스토니아산 유제품 수출이 감소하였음.
 - 국가별 대러시아 유제품 수출 감소 비율은 리투아니아 42%, 라트비아 42%, 폴란드 29%, 핀란드 20%임.

- 에스토니아가 수출을 확대한 국가의 경우, 에스토니아보다 우유 가격이 높은 국가들임.
 - 2015년 기준으로 몰타에서는 우유 1kg당 0.47유로(약 591원)이며, 이탈리아에서는 1kg당 0.39유로(약 491원)임. 이는 에스토니아의 0.21유로(약 264원)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함.
 - 에스토니아 우유의 수출이 감소한 시장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우유 가격은 에스토니아와 비슷한 수준인 1kg당 0.22유로(약 277원)이며 폴란드의 경우에는 0.27유로(약 339원)임.
 - 전반적으로, 러시아 시장 제재로 인한 손실은 멀리 장거리 신 수출국 수출실적 저조 및 기 수출국의 판매량 감소 역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임.

- 에스토니아 농림축산부 장관이 중국에 방문하였을 때, 에스토니아 측은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하여 논의하였음.
 - 물론, 중국은 유럽 국가들이나 중동 지역과 같이 우유가 인기가 없으므로, 중국이 에스토니아 우유 생산자들의 주요 판매 시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임.
 - 또한, 거리 역시 고려해야 함. 유제품은 빠르게 상하기 때문에 거리는 유제품 수출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.

- 에스토니아의 소규모 유제품 생산자들은 순이익률이 낮아, 치즈와 같은 고부가가치시장에 진입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, 우유의 판매를 줄이고 치즈 생산을 늘리고 있음.
 - 우유 생산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역시 존재함.
 - 유럽연합 위원회는 지역의 농부들에게 5억 유로(약 6,297억 원)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

것이라고 밝혔음.

- 이 지원 패키지 중 1억5,000만 유로(약 1,889억 원)가 우유 생산 감소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됨.
- 나머지 3억5,000만 유로(약 4,408억 원)는 소규모 농장 지원 및 생산 방법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임.

□ 유럽연합 위원회의 노력, 신규 수출 시장 개척, 생산 방법의 발전은 우유 시장을 안정화하고, 농부들에게 가격 하락 이전의 수입 수준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전망함.

-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의 유제품 시장의 손실은 우유 생산자들이 신규 시장을 찾으면서 최소화될 것으로 보임.
- 에스토니아의 경우, 신규 개척된 시장에 더 많은 양을 수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.
- 유럽연합 내의 우유 가격 안정화는 더 시급한 사안임. **EMERiCs**

출처

에스토니아 통계청, Eurostat, 유럽연합 위원회, 유럽연합 우유시장감독원 등

💡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